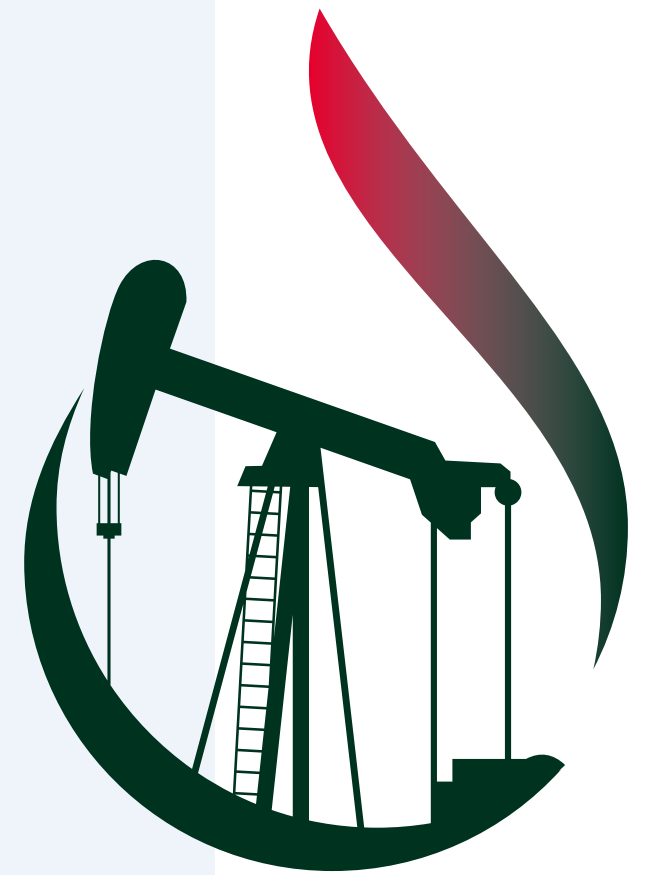




Creating Value Beyond Energy



미래가 더해진 에너지!

한국석유공사 2019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이끄는 한국석유공사

에너지는 국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특히 석유는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석유공사는 국내 유일의 석유개발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신사업 등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Energy is moving the future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2019년은 한국석유공사에 있어,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 사장 양수영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불안정한 국제유가와 세계석유시장의 수급불안으로부터 우리경제를 지키기 위해 1979년 설립된 이래,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전기차가 도로를 누비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석유자원은 미래에도 여전히 주종 에너지원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도 석유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산업소재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임무 수행은 민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책임사업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안보 확립”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국민적 열망을 갖고, 자원 확보 전쟁의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2019년은 UAE 지역 할리바 유전의 생산개시와 국내대륙붕에 대한 적극적인 탐사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윤리경영, 상생협력, 동반성장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임직원 모두 더욱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이며,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랑과 신뢰를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수영 사장

주요연혁

- 2019. 07 UAE 할리바 유전 생산개시
- 2018. 09 캐나다 블랙골드사업 생산개시
- 2016. 10 동해-2 가스전 생산개시
- 2014. 11 울산광역시 신사옥 이전
- 2013. 06 동북아오일허브 비전 선포 및 여수저장시설 준공
- 2012. 03 UAE 3개광구 탐사사업 참여계약 체결
- 2011. 12 알뜰주유소 사업개시
- 2011. 04 미국 이글포드사 세일오일 사업 참여
- 2010. 04 베트남 15-1 광구 흑사자 북동부 유전 생산개시
- 2008. 04 유가정보서비스 오픈넷 개시
- 2006. 12 베트남 11-2광구 가스생산 개시
- 2004. 07 동해-1 가스전 생산개시
- 2003. 10 베트남 15-1광구 흑사자 남서부 유전 생산개시
- 2000. 09 베트남 15-1광구 대규모 석유 발견
- 1999. 01 종합석유정보망 페트로넷 개시
- 1987. 12 국내 대륙붕에서 최초로 가스 발견
- 1979. 03 한국석유공사 설립

2030 중장기전략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2019년 새로운 핵심가치와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단단하게 성장하겠습니다.

MISSION

석유 수급 안정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

VISION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SLOGAN

오늘의 도전, 내일을 위한 혁신, 모두가 함께하는 석유공사



전략방향	주요사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미래 혁신성장 추진	국민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석유공급 안보와 국민 안전 강화
전략과제	주요 사업 생산성 및 경제성 제고 • 해외 자회사 경영 효율화 및 합리화 • 체계적 부채관리를 통한 미래투자기반 마련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신사업 개발 • 에너지 신사업 추진 모멘텀 확보 • 조직문화 혁신과 스마트 경영 프로세스 구축	대국민 신뢰 증진 및 편익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동반성장 강화로 상생가치 극대화	석유공급 기능 물량 확대 • 선제적 안전환경 조성과 재난 대응 • 상시 정보보안 체제 운영

“미래를 향하고, 미래를 짓다”

한국석유공사는 설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 지역에서 석유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기술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주요사업개요 * 2019년 6월말 기준

석유탐사·개발·
생산사업(E&P)



17개국 31개 사업

국내 및 해외
E&P사업 진행

석유비축
사업



146백만 배럴
비축시설 용량

96백만 배럴
비축유 확보

전국 9개
비축기지 운영

알뜰주유소
사업



전국 1,189개 운영
(전국 주유소의 약 10.1%)

알뜰주유소 운영

석유 정보
서비스



페트로넷 이용자
82.6만명(연)

오피넷 이용자
1.2억명(연)

석유정보망 운영

석유개발사업

해외유전개발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베트남 15-1 광구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유럽, 중아시아 등에도 진출해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2012년에는 민간기업과 함께 UAE 3개 광구 탐사사업에 진출, 2019년 7월 할리바 유전에서 상업적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UAE에서 탐사, 개발, 생산에 성공해 국내 직도입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해외유전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내대륙붕개발

한국석유공사는 1998년 울산 앞바다에서 양질의 가스층을 발견, 동해-1가스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오랜 산유국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2019년에는 동해 심해지역에 위치한 8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에 대한 신규탐사권을 확보했으며 향후 10년간 이곳에서 탐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국내 대륙붕 개발을 통해 국내 석유개발사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동반성장 및 고용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비전통자원개발

한국석유공사는 2011년 미국 이글포드 사업 추진을 통해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캐나다 블랙골드 광구에서 오일샌드를 생산해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기업 최초 비전통자원 개발사업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너지로 각광받는 셰일가스 등 비전통자원 개발기술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석유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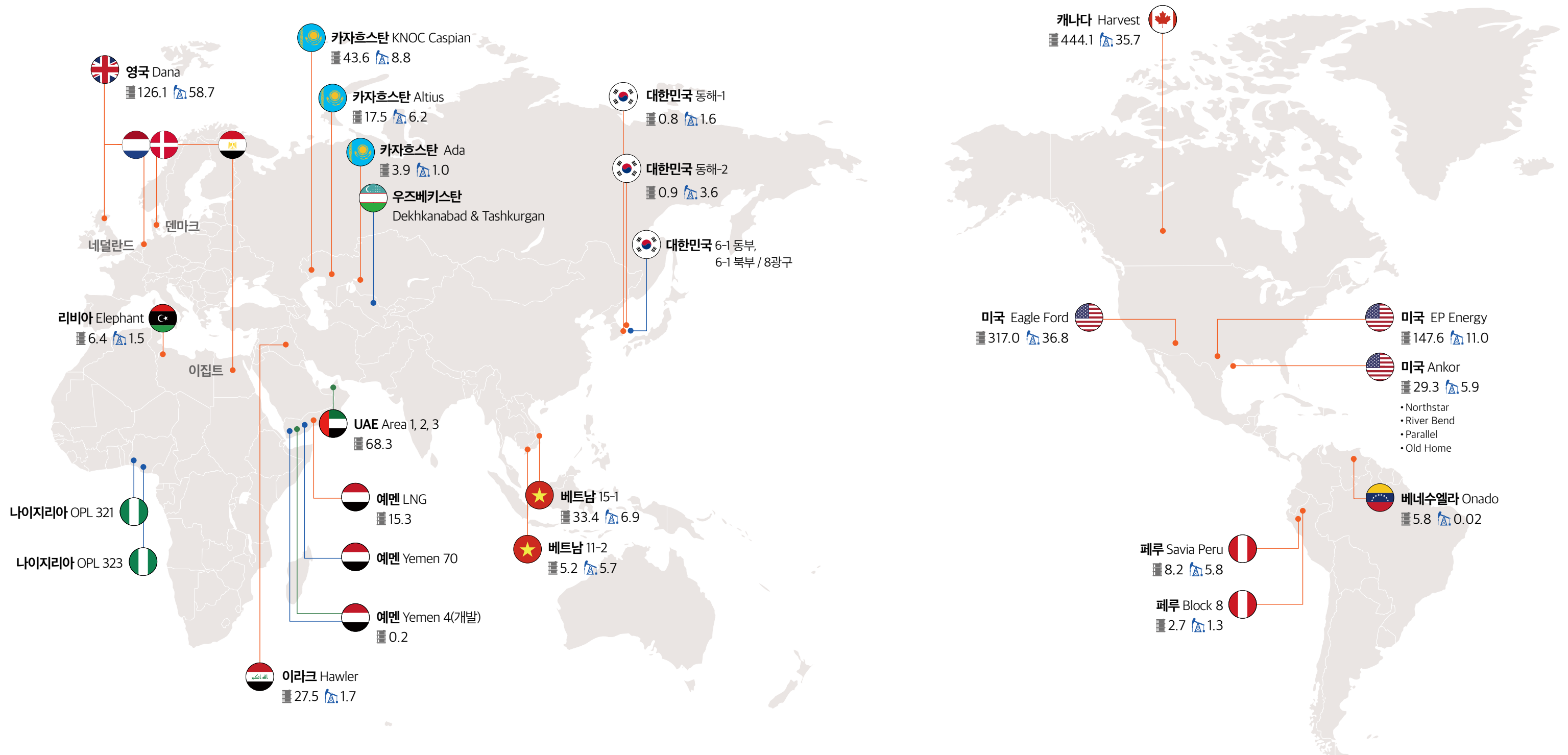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는 국가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총 17개국에서 31개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생산광구 : 22
● 개발광구 : 2
● 탐사광구 : 7

■ 매장량(백만 배럴)
▲ 일일 생산량(천 배럴/일)

일일생산량
192.2천 배럴/일
매장량
1,303.4백만 배럴

*공사 지분 몫(2019년 6월말 기준)



석유비축사업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미래, 석유전략비축

한국석유공사는 전국에 9개 비축기지를 운영중으로, 총 14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에 2019년 6월말 기준, 96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비축물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89일간 국내 순수입량에 해당합니다.

1979년 설립 이래 국가 석유비축사업을 추진, 국내 수급 불안시에 비축유를 지원하여 국내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사태에 따른 석유수급 불안 완화를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유 및 비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타레이딩

국제석유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활용, 원유·석유제품·LPG 트레이딩 거래를 실시하고, 그 수익은 비축유 자체증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비축

비축시설의 여유공간을 활용해 산유국 등의 물량을 유치·저장하여, 석유 비축수준 제고는 물론, 저장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축자산대여

국내 석유수급 차질시, 국내 정유사 등 민간기업에 비축유 및 비축 시설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국내 석유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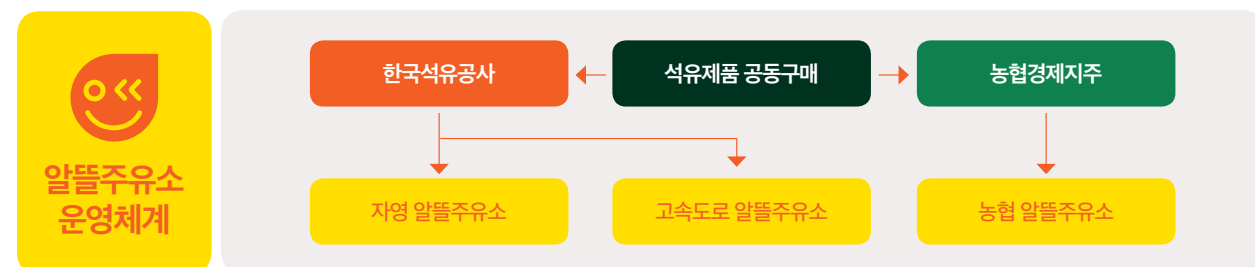
사회적가치실현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국민행복을 이어주는 든든한 KNOC”가 되겠습니다.

알뜰주유소

국민 기름값 지킴이!
알뜰한 가격 좋은 품질로
물가 안정에 앞장섭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에 좋은 품질의 석유제품을 알뜰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통해 유류 구입단가를 낮추고 유통 비용도 절감하여 합리적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함으로써 유가 안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공급가격이 석유거래 기준가격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한국석유공사는 투명한 석유거래 환경 조성 및 석유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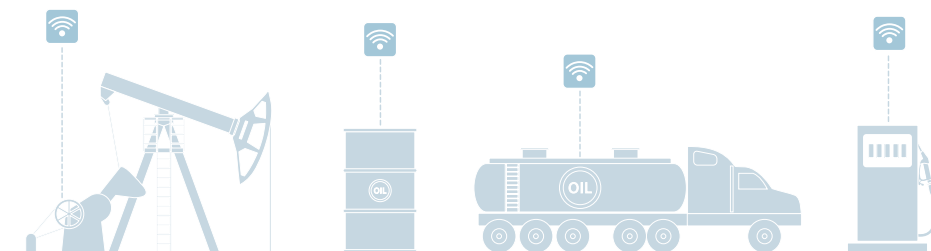


석유정보서비스

종합석유정보망 페트로넷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와 관련된 주요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석유정보망 페트로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넷을 통해 국내외 유가·수급 동향 및 석유개발 현황·분석정보 등을 일반국민, 정부기관, 연구기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석유정책 수립, 학계의 연구, 국내산업 발전 및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www.petronet.co.kr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한국석유공사는 실시간 국내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을 운영하며 국민 생활 편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약 1만 2천여개의 주유소와 2천여개의 LPG 충전소의 판매 가격 정보를 오피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싼 주유소 찾기, 불법행위업소 공표, 품질인증주유소 공개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평균 32.7만명이 이용하는 생활정보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www.opinet.co.kr

사회 공헌

한국석유공사는 사업 특성과 연계한 에너지 복지 지원, 지역사회 상생 협력, 석유산업분야 학술문화 진흥, 지역 사회 공헌 등 나눔문화에 앞장서는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8년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지역사회에 수영장을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혁신도시 상생발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및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국민공감 공유가치 창출 공공기관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한국석유공사는 해상플랜트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6월 생산 종료예정인 동해가스전 플랫폼을 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스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석유공사는 비축기지에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2013년 곡성기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비축기지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여 청정에너지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 & 환경 경영

한국석유공사는 글로벌 석유회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HSEQ(보건, 안전, 환경, 품질) 경영시스템과 국제적으로 인증된 환경경영 시스템(ISO14001:2015)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PSM 최고 등급(P) 달성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철저한 안전 관리 추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PSM*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가 4년마다 실시하는 PSM 평가에서 곡성, 구리, 평택기지가 최고 등급인 P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PSM(공정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안전 관리상태를 P(우수), S(양호), M+(보통), M-(불량) 등급으로 평가

재해·인명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Zero”

전국 9개 모든 비축기지에서 매월 재난대응 훈련과 안전점검 실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 비축기지 대규모 재해·인명사고 “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제자원 확대 및 해양오염 방제훈련 실시 등의 노력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0”건을 기록하였습니다.

